



다이소
‘리얼필드’로
소포장·저가 주목
L1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 영업이익
1조 돌파
L2



완만한 곡선길 따라 겹겹이 채워진 녹음 단지 안에 들어온 숲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단지 입구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양옆으로 소나무와 관목, 꽃을 심어 녹지의 밀도를 높였다. /성채리 수습기자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서해선 시흥대야역의 길게 이어진 2번 출구를 따라 지상으로 나오면 길 건너편에 들어선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가 한눈에 들어온다. 단지 상가 외벽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과 상가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다. 7월 초 입주를 시작한 단지 안팎은 굿은 날씨에도 분주했다. 이삿짐 차량과 입주 청소 차량이 단지 진입로를 오갔다. 일부 차량은 단지 내 차도와 보행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대곡역에서 서해선으로 환승하거나, 연신내역에서 GTX-A를 이용해 대곡역까지 이동한 뒤 서해선으로 갈아타면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에 도착한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선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는 ‘시흥대야3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다. DL이앤씨가 시공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 동, 총 1026가구 규모다. 기존 영남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 대단지로, 신축 공급이 많지 않았던 대야동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다.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선 시흥대야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다. 서해선을 통해 부천과 광명, 김포공항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사당역과 강남, 판교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운행된다. 시흥나들목(IC)과 서해안로, 제2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차량 이동이 비교적 편리하다.

단지 인근 교육시설은 대야초와 은계초, 은계중, 은행고 등이 있다.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흥과학고등학교도 들어선다. 대형마트와 병원, 영화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있고 은계숲생태공원과 밤비천물길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깝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재건축 대단지 광역 교통망에 학교·편의시설 갖춰 녹지 밀도 높은 정원형 조정 조성

보행로 곡선 활용해 산책동선 연결 수목과 어우러진 가장자리 산책로 불규칙한 수목으로 녹지밀도 높여

곡선형 계단으로 이어진 분수정원 풍경 한눈에 보이는 ‘드포엠카페’ 녹지와 어우러진 야외 운동공간도

피트니스센터와 남녀편백사우나, 스카린골프장, 라운지 카페, 유아 실내놀이터,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등을 갖췄다. 분수정원과 연계된 ‘그린카페’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용시설도 있다.

외벽에는 DL이앤씨가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공동주택 외벽의 콘크리트가 물과 염화물 등 외부 열화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을 기존 도장 기술보다 5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지 안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지피식물이 촘촘하게 심겨 있다. 정원 요소를 반듯하게 정렬하기보다 다양한 수종을 불규칙하게 배치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을 연상시켜 녹지의 밀도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정원은 노타나무와 연필향나무, 물푸레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로 꾸며졌다. 육생비오톱에는 메타세쿼이아와 산수유,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동 사이 보행로에 안전한 곡선을 활용한 점도 특징이다. 짙은색 벽돌과 서로다

른 색상의 보도블록을 사용해 길에 변화를 줬으며, 자연석과 낮은 조명을 곳곳에 뒀다. 정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단지 안을 오가는 일상적인 동선이 산책처럼 느껴진다.

단지 가장자리에는 아파트 안팎의 경계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진다. 큰 나무가 만든 그늘과 새로 심은 수목이 어우러져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줄이는 녹지 완충공간 역할을 한다.

한편에는 분수정원과 함께 입주민 휴게공간인 ‘드포엠카페’가 조성됐다. ‘드포엠(dePOEM)’은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을 뜻하는 ‘de’에 시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POEM’을 결합한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정 브랜드다.

카페는 검은색 철제 구조와 짙은 유리로 이뤄졌다. 주변 풍경이 유리 벽면에 비쳐 건물이 정원 속에 스며든 모습이다. 경사진 지붕과 반투명 천장은 온실을 연상시킨다.

건물 둘레에는 나무 데크를 깔고 크기가 다른 자연석과 자갈을 배치했다. 굵은 길과 계단을 따라 오르면 카페와 분수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에 닿는다. 입체적인 조경은 숲속 비밀 공간을 찾아가는 듯한 경험을 만든다. 울창한 수목 사이로 보행로가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는 구조 또한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인조잔디를 조성한 야외 운동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됐다. 부지 한가운데 나무와 관목을 심고 운동기구를 양쪽으로 나눠 배치한 구조가 눈에 띈다. 수목을 공간의 중심축으로 삼아 녹지와 운동시설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저층부와 연결된 형태로 조성됐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와 초화류가 커뮤니티센터 입구까지 이어지며 회색 석재 건물에 생기를 더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단지 내 분수정원. 높낮이가 다른 화단과 곡선형 계단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2 기존 큰 나무와 새로 심은 수목이 어우러진 단지 외곽 산책로.
3 크고 작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촘촘히 심어 녹지 밀도를 높인 단지 내 숲길 보행로.

메트로 한줄뉴스



▲‘AG 4연속 금메달 도전’ 이민성호, 사우디·카타르와 D조서 경쟁
▲송성문, 9회 대타 출전해 1타수 무안타…샌디에이고는 6-7 석패 /사진 뉴시스

▲‘첫 AG 우승 도전’ 신상우호 여자축구, 북한·방글라데시·미얀마와 경쟁
▲탕웨이 둘째 아들 낳았다 “네 식구 여행이 시작됐다”

▲연상호 ‘기생수’ 시리즈 또 만든다…이번엔 한·일 합작
▲유네스코 “日 사도광산 강제 동원 포함 ‘전체역사’ 명시하라”